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9호 [무계 제23151호] 주제99 (2010)년 7월 18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라오스통신이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촬영을 하신 소식을 6일 라오스통신이 보도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 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여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예술을 대중화함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도 불라는 조국애와 혁명적군인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충창남편들과 한진호에서 사회주의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

위대한 혁명가적품모를 가장 승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인 이떨러 아중합투자그룹 리사장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를 개척하고 실현해나가는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그들속에 계시었다.

로므니아근로자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0대의 어려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일체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선 땅에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을 건설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고 고퉁을 함께 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개척하고 실현해나가는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그들속에 계시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조선에는 심심할수록 바다의 외진 섬마을에 이르러까지 김일성주석의 발자취가 어려지지 않은 곳이 없고 주석의 사랑이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다. 주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여러 험난한 불평등의 포진길을 걸으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말하였다.

메히코주체사상연구소에서 발행한 불평등은 김일성주석의 생애에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고 울음과 함께 하신 한평생이었고 하면서 농촌에 가시면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농사일도 의논해주

시고 공장에 가시면 로동자들의 기쁨을 손에 잡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으며 근로자들의 집을 찾아가시어는 가마뚜껑도 열어보시며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셨으니 바로 주석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브라질조선친선협회에서 발행한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일성주석께서 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사상도, 항일의 나날 근거지에 창설하시였던 독자적인 정권형태로서의 인민혁명정부도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주석께서 해방후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의 세기적속망을 풀어 주신것도 인민의 아들로서 헌신하시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주석의 이인위인의 리념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전방적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으며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검대는 나라로 되었다.

라오스신문 《빠싸손》은 김일성주석의 발자취가 있어서 인민은 사랑받는 아들딸이었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 천만 자식을 위해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요일과 명절날, 생신날까지도 쉬없이 일하시였다.

전쟁을 분과 초로 조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신 주석께서 인민의 기쁨은 곧 자신의 기쁨이었다.

그이께서는 생전에 인민들을 보살펴주고 위해주는것은 자신의 들도 없는 의무이라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히 쉬라고 하지만 그럴수 없다고,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것이 퍼 힘든 일이라는 하지만 그 이상 행복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것이 자신에게는 더없는 보람이고 기쁨이고 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기내라지오방송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생애는 참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었다. 주석의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국과 인민이 있었다. 주석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었다.

류예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의 로정에 사신의 고비가 수없이 많았으나 주석께서는 자신의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으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진보적인류의 경탄과 흠모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 11일부가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김일성주석의 전승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7월 27일은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당한 세계전쟁사에 특기할 날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김일성주석의 비범한 평균술과 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전승을 안아오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로 부터 출발하고있는 주석의 군사사상은 군사사업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전쟁에는 사람뿐 아니라 무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동원되는데 그것들은 모두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군사물자나 고도로 현대화된 군사장비도 전쟁수행의 주체인 군대와 인민의 역할을 대신할수 없다는것이 김일성주석의 지론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변화무쌍한 전략전술로 전쟁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전쟁국면을 유리하게 전전시켜 최후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천변만화하고 립기유변하는 그이의 독특한 군사전법과 대담하고 명확한 작전지휘로 하여 미국은 대병력과 수많은 군사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워 나라의 정치군사적전진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으로써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이 일어나 다음 날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통하여 전체 인민이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총력기합을 호소하시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군인일치의 위력으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여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전승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947호 주제99 (2010)년 7월 17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변함없이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주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를 훌륭히 완공해나가는 장구한 혁명투쟁의 선봉을 빛내며 실현하는 영웅적위훈을 세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948호 주제99 (2010)년 7월 17일

대계도간석지설계도에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용근한 개군의 면적과 맞먹는 부친명을 얻어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킨 로동명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대계도간석지설계도에 《김일성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948호 주제99 (2010)년 7월 17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앞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열기모임 진행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열기모임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뒤에 굳게 뭉쳐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며 대고조전진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이 모임장소들에 세차게 끓어치고있었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사가 전달되고 토론들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중앙원 열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중앙원 열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중앙원 열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 함흥 열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본사기자

대고조전투쟁의 새 소식

금야강발전소 대상설비생산 결속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에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졌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3월달에 금야강발전소건설을 위한 열기모임이 열리자마자 문명적정기공기와 문명적정기공기를 비롯하여 열기모임에 물문전양기생산을 끝냄으로써 맡겨진 대상설비생산과제를 빛내게 결속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대고조의 불길로 자력갱생의 정진으로 지퍼올리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우리 손으로 열어제껴야 합니다.》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금야강발전소건설장에 보낸 대상설비생산을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생산지휘 일군들은 대고조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켜 물문전양기들의 부속품과 파지기와 협동품을 조립일정에 맞게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일군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에 더욱 큰 힘을 얻은 기업소의 조립공들은 물문전양기들의 총조립 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성과적으로 끝내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금야강발전소 대상설비생산을 빛내게 결속한 통성의 로동계급은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으로 빛내이기 위해 흥남가소화대상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혁명적열정과 량만의 숨결 드높은 교정

평성의학대학은 교육환경을 잘 꾸려놓고 교원, 학생들의 실력도 높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을 놓고 말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자랑이 있다.

교정에 넘치는 혁명적열정과 량만의 숨결

4년전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대학에서는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서도 남상준장과 녀성 4중창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또다시 1등과 2등으로 당선되는 자랑을 지니었다.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대고조전투쟁마다에서 진행되는 대학예술소원들의 순회공연활동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참가하고 즐기는 대중예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평성의학대학의 대중예술활동을 주목해보면 뚜렷하게 안겨오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대학에 정해진 예술소원이 따로 없다는것이다.

평성의학대학 교직원, 학생들

말하자면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누누나 다 예술소원이고 『배우』인셈이다.

화려한 텔레비전무대에 올라 대학의 영예를 빛내이는 명가수들도 대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오는 나날에 높은 예술적기량을 소유한 교직원, 학생들도 훌륭한 대고조전투쟁에서 찬란대중의 심장에 투쟁과 혁신의 불을 달아주는 예술소원들도 최우등성의 영예를 떨치는 학생들이다. 대중예술활동이 몇몇의 선발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 모두가 참가하는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것을 말해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하다면 어떻게 되어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문화정서수준이 높은 경지에 올라설수 있게 되었는가.

그 대답은 몇해전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이 한창이던 그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모습이 텔레비전화면으로 방영되던 그때 대학의 당책임원은 교정의 류다문 술집을 간혹하였다.

누구나 만나면 노래경연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다 음반경연에는 더 잘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대학의 명예를 한 번 분배있게 펼쳐보자는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대학에 혁명적정서와 량만의 숨결이 차넘치게 할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대학당조직에서 는 지체없이 대중예술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에 들어갔다.

대학당조직위원회 일꾼들은 태양절과 2월 16일을 비롯한 중요명절들에 진행하는 학부예술소조경연이 그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였다.

우선 모든 학부들이 자체실정에 맞게 경연을 조직하고 여기에서 선발된 종목들을 가지고 대학적인 경연을 또다시 진행하는 방법은 대학의 전체교직원, 학생들이 누누나 높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대중예술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할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대학에서는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요소를 다루는 교육환경과 조건개선을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틀어쥐고나갔다. 4층짜리 박사원건물을 새로 건설하고 대도서관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며 1, 2호기숙사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 1600여개의 과석을 가진 종합강의실을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방대하고 아름다운 사업들을 대담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나갔다.

새로운 목표는 방대하고 수행해야 할 과업들은 아름답도록 꾸며주거나 통유리는 사람을 한층 높였다. 학조와 혁신의 숨결이 고동치는 대학가에는 언제나 노래가 있었고 혁명적열정과 량만의 숨결이 새겨져 있었으며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단비처럼 비를 내리는 학과실용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에 들어갔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2010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팀이 뉴질랜드팀을 2:1로 이겼다

『평양 7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여자축구나 선수들이 2010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조별리그전 2호 두번째 경기에서 뉴질랜드팀을 2:1로 따돌렸다.

이번 경기대회는 세계여자축구나 발전전망과 해당 나라와 지역들의 축구실력을 보여준 것으로 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치열하게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 팀은 평양시간으로 17일 뉴질랜드팀과 경기를 하였다.

앞선 경기에서 유예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브라질팀을 이긴 우리 선수들은 뉴질랜드팀과의 대진에서도 강의한 정신력과 의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시작부터 축출과에 의한 넘겨차기와 대담한 정공치러차넣기, 제지있는 중앙중과 등으로 드세 공격을 틀어쥐어 뉴질랜드팀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상대팀수비구역에서 특점기회를 노리며 맹활약을 하던 윤희현 선수가 전반전 12분경 있었는 차넣기를 성공시키며 이어 후반전 65분경 김은향 선수가 11번넘겨차기를 성공시키므로 우리 팀은 경기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였다.

뉴질랜드팀은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전면공격으로 나섰다. 우리 팀의 든든한 방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뉴질랜드팀을 2:1로 이김으로써 종합점수 6점을 획득하였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의 숨결 드높은 교정

평성의학대학은 교육환경을 잘 꾸려놓고 교원, 학생들의 실력도 높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을 놓고 말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자랑이 있다.

교정에 넘치는 혁명적열정과 량만의 숨결

4년전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대학에서는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서도 남상준장과 녀성 4중창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또다시 1등과 2등으로 당선되는 자랑을 지니었다.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대고조전투쟁마다에서 진행되는 대학예술소원들의 순회공연활동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참가하고 즐기는 대중예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평성의학대학의 대중예술활동을 주목해보면 뚜렷하게 안겨오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대학에 정해진 예술소원이 따로 없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새롭고 참신한 〈흥루몽〉》, 《중조 친선의 하늘에 비낀 눈부신 무지개》

가극 《흥루몽》 공연에 대한 심양시민들의 반향

중국각지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가극 《흥루몽》 공연이 12일과 13일 동북3성의 하나인 료녕성 소재지 심양시에서 진행되었다.

공연기간 도시는 격조와 흥분으로 옮겨받았으며 공연장소인 료녕대극원은 번번 관객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특히 13일은 료녕대극원 광장에서 수많은 심양시민들이 우리 나라 노래선물을 맞추어 축을 주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성과 시의 인사들과 인민들, 제중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공연이 끝난 후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이 전달되었다.

관객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저저마다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서 《잘한다》, 《최고이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료녕성 성장 진정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게 되어 열광했다. 올해 5월 김정일동지를 료녕성에 모시었을 때 가극 《흥루몽》을 우리 성에도 보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

가극 《흥루몽》은 원작의 내용을 잘 살렸다. 고전명작의 정수를 깊이 파악하고 가보옥과 림태옥의 성격과 운명을 훌륭히 그려냈다.

공연을 보고 우리 문화예술계가 큰 충격을 받았을것이다. 심양시당 서기 쉰쥬는 피바다극단이 가극 《흥루몽》을 심양시민들에게 보여주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중국사람들 누구나 잘 아는 작품인 《흥루몽》은 중국문학사에서 큰 지위를 차지한다. 소설도 명작이지만 가극도 명작이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 로진은 《흥루몽》은 보는 사람마다 리해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선 예술인들은 중국작품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파악에 기초하여 높은 수준에서 그것을 감동적으로 묘사하였다.

가극 《흥루몽》은 인기가 높았다. 피바다극단은 심양시민들에게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었다.

《우리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적증흥을 살리는 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심양은 우리 나라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더운 시기인 초복, 중복, 말복을 총칭하여 이른 말이다. 이 세복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무더위가 모이면 때라는 뜻에서 《복날》이라고 하였다.

심양은 우리 나라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더운 시기인 초복, 중복, 말복을 총칭하여 이른 말이다. 이 세복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무더위가 모이면 때라는 뜻에서 《복날》이라고 하였다.

심양은 우리 나라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더운 시기인 초복, 중복, 말복을 총칭하여 이른 말이다. 이 세복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무더위가 모이면 때라는 뜻에서 《복날》이라고 하였다.

심양은 우리 나라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더운 시기인 초복, 중복, 말복을 총칭하여 이른 말이다. 이 세복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무더위가 모이면 때라는 뜻에서 《복날》이라고 하였다.

심양은 우리 나라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더운 시기인 초복, 중복, 말복을 총칭하여 이른 말이다. 이 세복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무더위가 모이면 때라는 뜻에서 《복날》이라고 하였다.

심양은 우리 나라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더운 시기인 초복, 중복, 말복을 총칭하여 이른 말이다. 이 세복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무더위가 모이면 때라는 뜻에서 《복날》이라고 하였다.

심양은 우리 나라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더운 시기인 초복, 중복, 말복을 총칭하여 이른 말이다. 이 세복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무더위가 모이면 때라는 뜻에서 《복날》이라고 하였다.

심양은 우리 나라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더운 시기인 초복, 중복, 말복을 총칭하여 이른 말이다. 이 세복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무더위가 모이면 때라는 뜻에서 《복날》이라고 하였다.

원산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원산시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들에게 있어서 올해는 자질향상의 해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원들이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자면 자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몇해동안 이곳에서는 일꾼들이 앞장서서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다중직업의 지도도에 대학의 예술소원들은 지난해에 남상준장과 녀성 4중창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또다시 1등과 2등으로 당선되는 자랑을 지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참가하고 즐기는 대중예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평성의학대학의 대중예술활동을 주목해보면 뚜렷하게 안겨오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대학에 정해진 예술소원이 따로 없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활기있게 벌어지는 자질향상사업

원산시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들에게 있어서 올해는 자질향상의 해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원들이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자면 자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몇해동안 이곳에서는 일꾼들이 앞장서서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다중직업의 지도도에 대학의 예술소원들은 지난해에 남상준장과 녀성 4중창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또다시 1등과 2등으로 당선되는 자랑을 지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참가하고 즐기는 대중예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평성의학대학의 대중예술활동을 주목해보면 뚜렷하게 안겨오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대학에 정해진 예술소원이 따로 없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또 하나의 힘은 파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광산마을에 훌륭히 꾸려진 수영장에서 마음껏 해염치며 희열에 넘쳐있는 청소년들



대학 학생들의 열정적인 공연 모습

2010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팀이 뉴질랜드팀을 2:1로 이겼다

『평양 7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여자축구나 선수들이 2010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조별리그전 2호 두번째 경기에서 뉴질랜드팀을 2:1로 따돌렸다.

이번 경기대회는 세계여자축구나 발전전망과 해당 나라와 지역들의 축구실력을 보여준 것으로 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치열하게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 팀은 평양시간으로 17일 뉴질랜드팀과 경기를 하였다.

앞선 경기에서 유예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브라질팀을 이긴 우리 선수들은 뉴질랜드팀과의 대진에서도 강의한 정신력과 의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시작부터 축출과에 의한 넘겨차기와 대담한 정공치러차넣기, 제지있는 중앙중과 등으로 드세 공격을 틀어쥐어 뉴질랜드팀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상대팀수비구역에서 특점기회를 노리며 맹활약을 하던 윤희현 선수가 전반전 12분경 있었는 차넣기를 성공시키며 이어 후반전 65분경 김은향 선수가 11번넘겨차기를 성공시키므로 우리 팀은 경기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였다.

뉴질랜드팀은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전면공격으로 나섰다. 우리 팀의 든든한 방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뉴질랜드팀을 2:1로 이김으로써 종합점수 6점을 획득하였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20일에 진행하게 될 스웨덴과의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결과에 관계없이 8강자리에 진출하게 되었다.

《새롭고 참신한 〈흥루몽〉》, 《중조 친선의 하늘에 비낀 눈부신 무지개》

가극 《흥루몽》 공연에 대한 심양시민들의 반향

중국각지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가극 《흥루몽》 공연이 12일과 13일 동북3성의 하나인 료녕성 소재지 심양시에서 진행되었다.

공연기간 도시는 격조와 흥분으로 옮겨받았으며 공연장소인 료녕대극원은 번번 관객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특히 13일은 료녕대극원 광장에서 수많은 심양시민들이 우리 나라 노래선물을 맞추어 축을 주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성과 시의 인사들과 인민들, 제중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공연이 끝난 후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이 전달되었다.

관객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저저마다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서 《잘한다》, 《최고이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료녕성 성장 진정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게 되어 열광했다. 올해 5월 김정일동지를 료녕성에 모시었을 때 가극 《흥루몽》을 우리 성에도 보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

가극 《흥루몽》은 원작의 내용을 잘 살렸다. 고전명작의 정수를 깊이 파악하고 가보옥과 림태옥의 성격과 운명을 훌륭히 그려냈다.

공연을 보고 우리 문화예술계가 큰 충격을 받았을것이다. 심양시당 서기 쉰쥬는 피바다극단이 가극 《흥루몽》을 심양시민들에게 보여주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중국사람들 누구나 잘 아는 작품인 《흥루몽》은 중국문학사에서 큰 지위를 차지한다. 소설도 명작이지만 가극도 명작이다.

활기있게 벌어지는 자질향상사업

원산시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들에게 있어서 올해는 자질향상의 해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원들이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자면 자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몇해동안 이곳에서는 일꾼들이 앞장서서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다중직업의 지도도에 대학의 예술소원들은 지난해에 남상준장과 녀성 4중창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또다시 1등과 2등으로 당선되는 자랑을 지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참가하고 즐기는 대중예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평성의학대학의 대중예술활동을 주목해보면 뚜렷하게 안겨오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대학에 정해진 예술소원이 따로 없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열정과 량만속에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해나가는 평성의학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할대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대단

반제 평화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

반제투쟁의 전초선으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에 국제적판심이 오자고 있다. 모략적인 남조선자건을 계기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들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집결시킨다, 합동군사연습계획을 공표한다 어찟다 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고있다. 미제의 무모한 전쟁소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을 천백배의 격개심과 복수심으로 꿰개 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당의 투리에 굳게 뭉쳐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들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필적의 투지와 의지를 백배로 가다듬게 하고있다.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은 미제의 모략적인 새 전쟁도발책등에 도 끄떡없이 강성대국건설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고있는 선군조선의 장엄한 모습에서 반제투쟁의 확고한 승리를 내다보고있다. 그들은 오늘날의 선군조선의 위대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한평생 선군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정의와 진보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참된 투쟁의 무기를 인계하며 인류의 반제평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기록한 영도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업적을 놓고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업적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제평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자주화신 세계를 창조하는데서 귀중한 전

력히 여겨야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지 편집자 《프린더나팔》 창간호에 친히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이 로작은 오늘도 인류의 평화위업에 펼쳐나선 사람들반제투쟁으로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반제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라고 밝히시였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단결하여 공동으로 반제반미투쟁을 힘차게 벌려 나간다고 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도 진보적인민들의 반제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전기자들은 외국인들을 만나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지 편집자 《프린더나팔》 창간호에 친히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이 로작은 오늘도 인류의 평화위업에 펼쳐나선 사람들반제투쟁으로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반제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라고 밝히시였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단결하여 공동으로 반제반미투쟁을 힘차게 벌려 나간다고 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도 진보적인민들의 반제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평화에 호령력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단결하여 단호한 투쟁을 벌려야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평화호우투쟁의 주제를 강화할때 대한 문제, 반전쟁화해호우투쟁의 원칙과 전략전술, 파괴와 방도 등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데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어 세계평화에 호령력이 평화호우의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평화호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수 있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럽의 나토성원국들의 대미추종정책의 위험성을 깨닫히고 이 나라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기울어선 심혈과 로고도 반제투쟁에 전력하여 아로써져왔다. 1970년대 이후시기 미제가 들고나온 세계경제침략의 한고리는 대립정경이었다. 이 전략실현에서 미제는 유럽의 나토성원국들에 큰 기대를 걸고있었다.

유럽은 펜전시기 미국과 쏘련 두 초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블럭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와르샤조약기구》의 방대한 무력이 오매동간 침에하게 대처되어는 열적지대였다. 특히 서유럽 나라들은 대북부인 침략적군사블럭인 나토에 망라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들을 저지시키고

로 끌이였다.

주제 72 (1983)년 7월 2일 평양에서 진행된 반제, 친선, 평화화 위한 세계기차대회는 우리 수령님의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과 의지를 뚜렷이 파시하는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세계의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하고 수호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진리는 세계평화호우운동의 경험과 교훈의 력사적총화였고 현시대의 요구와 력사적과제를 반영한 인류의 평화위업수행을 위한 강령적지침이였다.

평화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고 수호할수 있다는 과학적진리는 세계평화호우인민들을 반전쟁화해호우운동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원동력으로, 평화의 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진리를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략술적방침들을 환히 밝혀주심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필증을 가지고 반제투쟁호우운동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으며 인류의 평화위업수행에 커다란 전진이 이룩될수 있었다.

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제투쟁호우투쟁의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전진하는 인류의 반제평화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강 경 숙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전범자

유엔헌장 제32조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리사국이 아닌 유엔상국 혹은 유엔성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든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임의하는 분쟁문제의 당사국으로 되는 경우 그 문제의 토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조처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조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회의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관용하게 지냈고 결의채택에서 우리 공화국대표를 초정하지도 않았으며 조선전쟁의 책임은 우리에게 돌리우고 저들의 침략군에 이른바 《유엔군》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비법적인 결의들을 조작하였던것이다.

밝혀주되 의하면 미국은 유엔에 제출한 결의안초안을 미리 작성해놓고있었다.

1951년 6월 5일 미국 회 상원 세출위원회 의국서 회상에 관한 청문회에서 당시 유엔담당 미국무성 차관보는 《북조선의 공화》를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문헌으로서 결의안초안을 사전에 만들어놓았다고 진술했었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한 기본장본인이라는것을 실증해

다. 미국은 지금도 1950년 6. 25전쟁발발의 책임이 우리 공화국에 있다고 나팔을 불어내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명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비법적인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자주 조성되였다.

미제의 책동은 새로운 6. 25 전쟁,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할 목적으로 감행하는 선행공작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북침전쟁책동을 예리하게 추지하며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적들의 전쟁모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하고 무자비한 군사적대응은 권위있는 이성을 체제로 날려보내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하는 정의의 선진으로 될것이다.

미제는 지난 시기와 같이 전쟁도발자로서의 범죄적책임을 감추기 위해 합부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리 경 수

로씨야의 이따르-파쓰통신이 7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소개하는 글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은 나라의 력사유물보존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오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인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따라 1945년에 창립되였다고 지적하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박물관사업에 깊은 관심을 들으시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물관에서는 조선력사에 대한 흥미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고 들을수 있다. 공화국이 창립된 후 많은 력사문화유물들이 평양과 그 주변지역에서 발굴되어 이곳에 소중한 보초되어있다. 중세기의 풍부한 문화유산들, 의례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들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유산들은 수도 평양의 자랑이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물관에서는 조선력사에 대한 흥미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고 들을수 있다. 공화국이 창립된 후 많은 력사문화유물들이 평양과 그 주변지역에서 발굴되어 이곳에 소중한 보초되어있다. 중세기의 풍부한 문화유산들, 의례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들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유산들은 수도 평양의 자랑이

다. 박물관에는 노에소유자가였던 고조선시기의 무덤모형 등과 조선중세의 화려한 벽화로 장식된 무덤모형들이 있다. 통신은 계속해서 박물관에 국보적 가치가 있는 수많은 력사유물들이 전시되어있는데 대하여서와 평양이 인류문화사지의 하나이며 인류문명의 요람이라는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소개하였다. 통신은 또한 임진조국전쟁시기의 명장 리순산과 거북신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쓰통신이 7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소개하는 글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은 나라의 력사유물보존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오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인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따라 1945년에 창립되였다고 지적하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박물관사업에 깊은 관심을 들으시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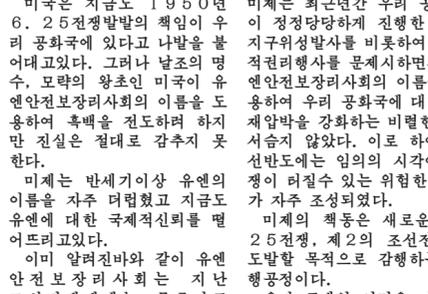
정 부 에 대 한 불 신 과 조 직

일본에서 그릇된 정책을 추구하고있는 현 내각에 대한 사회적불신이 고조되고있다. 이 나라의 교도통신은 12일과 13일에 진행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여 현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6월 2% 줄어들어있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율은 2.7% 올라

다. 2.2%에 달하였다 한다. 미국인들속에서도 현 행정부 후파에서 일어난 지진의 후폭파 수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서 고통을 겪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수천명의 각계층 중년이 참가하는 항의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참가자들은 당국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았는데 대해 단죄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는 9월 베네수엘라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이를 앞두고 지금 이 나라의 각 정당들은 맹렬한 선거운동을 벌리고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집권당인 베네수엘라 통일 사회주의당의 움직임이다. 얼마전 이 당의 원외장인 차베스대통령은 1999년에서 시작된 볼리바르사회주의혁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이 국회의석 165석중 3분의 2를 차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기존 당조직들을 흔트리려고 하고 그의 진주적들과의 역할을 높이며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체 당원들에게 잘라내 자란까지 말고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정세분석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야당들이 집권당에 비하여 대중적지반이 약하고 내부분열이 심한 조건에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이기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통일사회주의당이 국회의 과반의 의석을 차지할것을 희망



오스트랄리아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

모 글 에 서 인 민 혁 명 승 리 8 9 닷 을 기 념

모글에서 민족적명정인 인민혁명승리 89돛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날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민족체육경기가 벌어졌으며 시내 곳곳에서 경축공연 등이 진행되였다. 방송 대령령 짜히리아 엘베그도르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10일 수도의 수호바파르파당에서 수호바파르당상에 의한

을 진행하는 의식과 군부대들의 열병행진이 진행되였다. 몽골 대령령 짜히리아 엘베그도르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11일 중앙경기장에서는 결승행사가 있었다.

이 나라 대령령의 연설에 이어 민족체육경기가 벌어졌으며 시내 곳곳에서 경축공연 등이 진행되였다.

방송 대령령 짜히리아 엘베그도르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11일 중앙경기장에서는 결승행사가 있었다.

이슬람교 나라들 사이의 단결을 호소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 에드 알리 카메네이가 10일 단담담청상에서 이슬람교 나라들 사이의 단결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그 무슨 《안전》과 《정의》를 이룩하기 위한 전쟁을 저지르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을 배격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수단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들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스리나인을 체포해냈다.

같은 날 이슬람교는 가치 지대의 한 유니시에서 장강차들을 몰고들어 농성자들을 마구 파괴하였다.

본사기자

경 제 칙 제

이탈리아에서 올해 5월에 국가채무액이 1조 8 271 억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 150억에 더 늘어났기라고 한다.

유엔개발도원들속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13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경제 전망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소비자실태조사수가 6월에 비해 24%나 떨어졌

반제사회주의리념을 고수하기 위하여

가들과 민족주의세력들사이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차베스대통령의 지도밑에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를 쫓아가기 위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지난 4월 25일에 폐막된 당 제1차 비상대회이후 당조직조를 개편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차베스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9명으로 구성된 당정치국으로 새로 구성되고 당안에 조직위원회, 사회운동 및 인민전선위원회, 선거운동위원회, 동원 및 행사위원회, 법률위원회 등 선거를 위한 기구제가 설립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당원들을 광범한 대중들에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단계별투쟁과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첫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1대 10전투》(1명의 당원이 10명

이스라엘군의 폭압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2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 강서안지역의 헤브론시와 켈넨시에 쳐들어가 수백소동을 벌리던 끝에 6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해냈다.

같은 날 이슬람교는 가치 지대의 한 유니시에서 장강차들을 몰고들어 농성자들을 마구 파괴하였다.

본사기자

세계상식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올어진 건물

최근 기니사세계기록집권찬위원회가 아랍추정국립방송에서 유희안으로 준공될 예정인 사무실 및 호텔종합체 《캐피털 게이트》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올어진 건물로 인정하였다.

이 건물은 서쪽으로 18° 기울어져 건설되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보다 훨씬 더 기울어진것이라고 한다.

기니사세계기록집권찬위원회는 이 35층 (높이 180m) 짜리 건물의 외부공사 마감